

전남

함평항 개발, 지자체 갈등 확산 조짐

함평군이 추진하는 함평항 개발사업에 대해 인근 무안군과 영광군 어민들이 어업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 지자체간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군 손불면 화산리에 있는 함평항에 2010년 11월까지 27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방파제 건설을 비롯해 접안시설 확충, 항로 준설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장기간의 퇴적작용에 따라 대형 사구(砂丘)가 만들어지면서 어선의 운항이 어렵고 해저층에 쌓인 어업폐기물 등으로 어로활동에 지장을 초래, 함평항이 사실상 어항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여름철 태풍 등이 발생하면 함평군 관내 5개 어촌계의 어선 140여 척이

무안·영광 “생태계 파괴·자원급감” 반발

함평군 “어업피해 문제없다” 공사 추진

대피할 수 있는 어항이나 방파제가 마련되지 않아 매년 1~20척이 전파 또는 반파되는 재산피해를 보는 실정이다. 어서 이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크다.

함평군은 어민들을 중심으로 어업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 여항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방파제와 물양장, 진입도로, 항로 준설 등을 통해 다목적 기능항으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게 됐다.

그러나 함평만 주변 대규모 준설을 포함한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무안과 영광 등 인근 해역 어민들이 생태계

파괴와 어획량 감소 등을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무안군도 주변 해역 어민들의 의견수렴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함평군에 보내는 등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함평항에서 각각 1.3km와 2.4km 떨어진 곳에 있는 영광 향하도와 무안 도리포 주민들을 중심으로 항로 준설을 통한 무분별한 모래 채취가 이뤄지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보리새우 등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 같은 반발

에 대해 함평군은 목포대 갯벌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한 결과 함평항이 있는 확산어촌계 이외에는 어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항로를 준설하면서 소규모 구획으로 나눠 어업피해가 없도록 작업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부유물질 확산을 막는 방지막을 설치하는 등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현재 함평만 수심이 얕아 썰물 때 바다에 나가려면 방수복을 입고 뱃발을 50여m 걸어나 가야 배를 탈 수 있는 형편”이라며 “다음달까지 피해보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11월부터 김 포자 등에 피해가 없는 시기를 선택해 본격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올 여름 전남 해수욕장 570만명 다녀가

경제효과 4천억원... 명사십리 가장 많이 이용

올 여름 긴 장마에도 전남지역 해수욕장 이용객이 570만명을 넘어서고, 경제효과도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수욕장 이용객은 575만명으로, 지난해 552만명보다 4.2% 증가했다. 이런 추세를 보면 내년에는 600만명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 피서객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완도 명사십리로 112만명이 다녀갔으며, 이어 영광 가마미 34만명, 보성 울포 33만명 순이었다.

전남지역 22개 해수욕장을 찾은 2천명의 이용객을 표본추출해 설문조사한 결과 1인당 1일 평균 지출액은 6만9천원으로, 전체 이용객 대비 경제효과는 3천968억원에 달했다.

특히 피서객 대부분이 해수욕장에서 민박 및 식당 이용, 생필품 구입, 숙박용 텐트 이용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실질적인 지역 경제 파급효과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05년부터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운영중인 전남도 27개 해수욕장에 792동의 숙박용 텐트를 운영한 결과 올 여름 8만1천118명이 이용했으며, 이용수입이 2억8천7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설문조사 결과 피서객의 평균 체류기간은 1박2일이 44%로 가장 많았고 ▲2박3일 23% ▲당일 19% ▲5박 이상 18% ▲3박4일 7% 순이었다.

체류기간이 길수록 지출한 피서비용은 5만~10만원과 10만~15만원이 각각 29%였으며, 20만원 이상 14% 등으로 조사됐다.

/최권익기자 cki@

목포시민 하루 담배 소비 7만523갑

시, 7~8월 가장 많이 피워

목포시민들이 1년에 피우는 담배는 어느 정도일까?

무려 2천574만1천299갑이나 된다. 하루에 7만523갑을 피워 없앤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사실은 목포시 세정과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목포시가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로 거둬들이 세수가 무려 17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50억원의 조금 납입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담배를 피우는 인구가 줄었다는 반증

이다.

KT&G 목포지사에 따르면 담배 1종 한갑(20개비 기준)에 641원(담배 가격과 무관)을 시세인 담배소비세로 시에 납부하고 있다. 지난 8월 한 달만 해도 무려 8억원에 달했다. 또 목포시민들이 가장 담배를 많이 피우는 달은 7~8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재 담배취급 지정서를 발부 받아 목포 관내서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는 1천400여개소, 담배 소비세를 내는 곳은 KT&G목포지사를 비롯해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 타바코 아메리카, 우리담배 목포지사 등 4곳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구례 청넛골 탐스런 햇배 수확

28일 구례군 마산면 청넛골 과수원에서 주민들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햇배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여수엑스포 성공에 지역 대학 나섰다

조직위·市·남해안 6개 국립대 MOU 체결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남대·목포해양대 등 남해안 지역 대학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28일 2012 여수 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박람회조직위·여수시가 29일 여수시 박람회 홍보관에서 남해안에 있는 경상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전남대, 한국해양대 등 6개 국립대학교와 관·학·연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박람회 주제 관련 학술연구와 기술정보 교류를 통해 여수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뒷받침하고 지역과 대학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대학은 박람회지원단

을 구성, 박람회조직위·여수시와 공동으로 각종 학술대회를 개최하거나 관광·해양·환경 등 박람회 관련 분야 학술지문, 박람회 기간 대학생 자원 봉사단 참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박람회조직위 관계자는 “2012 여수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들 대학이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관·학·연’ 모델 제시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규기자 ykpark@

새터민 무료 합동 결혼식 ‘훈훈’

순천 탐웨딩홀, 축하객에 식사 제공도

순천의 한 웨딩홀이 새터민(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무료 합동 결혼식을 올려줘 훈훈한 인정을 보여줬다.

순천 탐웨딩홀(대표 이순기·48)은 지난 25일 김장완 순천경찰서장, 순천시 의회 김병근 운영위원장, 구회승 변호사를 비롯한 새터민 가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형편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새터민 3쌍의 합동결혼식을 가졌다.

이날 결혼식은 순천 탐웨딩홀이 신랑·신부에게 드레스·턱시도·신부화장을 비롯한 웨딩 앨범

까지 무료로 제공했다. 또 새터민 가족과 축하객들에게도 식사와 음료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순천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는 50만원 상당의 혼수품과 추석을 맞아 북한이탈주민을 격려하기 위해 16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 세트 등을 53명에게 전달했다.

박옥천(52) 동부지역 라이온스 총재의 주례로 열린 결혼식에서 이성철(39)·지선희(37) 부부는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사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희기자 ejkim@

휴게음식업 완도지방 농수산물 애용 캠페인



한국 휴게음식업중앙회 완도군지부(지부장 강태중)는 최근 완도읍상가와 타미널 등지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우리 농·수산물 애용 캠페인을 벌였다.

휴게음식업 회원들은 ‘건강의 섬’ 완도에서 생산된 각종 농수산물을 널리 홍보해 대량소비를 유도, 지역경제 발전을 앞당기고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캠페인에 나섰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대한지적공 해남지사 등대원 방문 봉사활동



대한지적공사 해남군 지사가 ‘나눔의 삶’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 해남군지사(지사장 강유원) 직원들은 최근 아동복지 기관인 해남 등대원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환경정리 작업을 벌였다.(사진)

직원들은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년 월급 자투리를 모아 지역 불우이웃들에게 위로금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강유원 지사장은 “지적공사의 작은 봉사활동이 모든 사람들에게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Advertisement for 'Small Business, Big Support' (작은남업 큰기쁨) featuring a grid of 48 local business listings with names, addresses, and phone numbers.